



들이 자기들 회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자체내의 행위를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게 함구명 같은 것을 내리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들은 꼭 스캔들이 나돌고 난 다음에야 對策을 講究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문직업의 활동동기란 진정한 책임감에서라기 보다는 다분히 이기적인 속셈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직을 자처하는 집단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예가 드물다. 전문직집단의 내부에서는 전문직 끼리의 경쟁이 계속되며 동시에 전문적으로 뚝고 들어오려는 타직업에 대하여는 정치 및 경제적인 수법을 驅使하여 완강한 저항을 보인다. 그다지 이롭지 못한 課題는 될 수록 다른 편에 배여 말기려 한다.

하지만 이같은 不美스러운 點이 있다하여 전문직업이란 훌륭한 봉사의 전통도 없고 기준에 대한 공약의 이행도 없다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들이 지식의 발전과 소관 분야의 실무기술 발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서적에다 전문직의 지위를 부여 하려는 노력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할 심산으로 타전문직의 맹점을 들추어 보았을 뿐이다. 이미 지위가 확립된 전문직업이라면 전문이란 글자가 붙은 직업이 육성, 발전시켜야 할 직무조건이 무엇이겠는가를 다 알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파괴하고 약화하고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정치 기타 세력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주 투쟁하여 왔다. 결국은 민주주의 전통의 내부에서 질서 있는 발전을 가져 오게 하는 한 가지 힘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위가 굳어진 전문직업은 실제에 있어 불완전한 行爲를 더더 하기는 하지만 새로 전문직이 되려는 직업에게는 전통과 이념, 모범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선배역이 되는 것이다.

사서직은 현재 심각한 인재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각 전문직업에서 서로 경쟁하며 끌어 가려고 하는 제한된 수의 인재 중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려면 일단 선발한 신인들에게는 보수가 충분하며 만족한 장래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화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의 情報供給者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는 위에 새로이 정보를 취급하기 시작한 다른 기관과의 경쟁도 해야 하는 시대에 처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情報管理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사서직은 전문직의 형식 뿐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고 내용을 더욱 충실히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분발이 없고서는 종당에 가서 사서는 서고지기로 남게 될 것이고 정보제공업무 중에서도 한층 적극성을 띤 분야와 지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른 기관에게 넘어가고 말 것이다.

도서관 교육을 담당하는 人士들 中의 혹자는 모든 회

망을 다음 세대에다 걸고 있다. 결국 이들은 현재 도서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미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취급해 버린다. 이런 태도에는 현실성이 없다. 다음 20년으로 말하면 사서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 확실하며, 이 기간에 정보취급 업무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주요한 결정을 行하는 것은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司書들이라는 점을 도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견해는 현재의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이 과거의 것을 딴고 서서 참다운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는 데 대하여 지나친 낙관론에 젖어 있을 위험이 있다. 역사를 들여다 보건대 圖書館學校는 여지껏 성취된 사서직의 전문화 정도야 어떠한 간에 이 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학교는 적어도 형식적인 의미에서만이라도 大學院級에 다 철관을 가져다 걸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도서관 교육기관과 교육담당자들이 현대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진전에 따른 급격히 변모해가는 시대조류에 충분히 적응해 나갈 능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가 없지 않다. (가끔 예외적인 기관과 개인이 있긴하다)

사실이지 수 많은 사서가 氣質 탓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의 반성 없는 경험의 누적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서기나 하고 앉았을 그런 일들에 안성맞춤이 되어 있다. 이들에게 좀 높은 지적인 작업을 요구할라 치면 이들은 敵意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반드시 지적인 노력에 흥미가 없거나 反對意思가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들 중에는 고도로 지적인 저력을 갖춘 인물들도 있다. 다만 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차원에서 작업하며 생애의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해 있거나 만족이 아니더라도 불만 없이 눌러 앉아 있다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교육과정과 실무의 어느 한쪽 아니면 양쪽이나 참신한 지적 내용을 너무도 완전히 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네들의 역할과 사서직 전반의 역할을 그저 평범한 市井人의 그것, 창조적인 역할이라고는 도시 소용되지도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데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상상력의 숨결이나 高次的인 정신력이라고는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타 유사한 직업전선의 인사들과도 같이 집을 사서 꾸미고 취미를 살리고 여행을 즐기는 방향으로 노력의 대상을 찾는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투는 이미 끝이 났다. 도서관은 9시 출근에 5시 퇴근의 그저 그렇고 그런 일터가 되며, 사서의 盛時는 긴긴 주말과 연휴와 여행과 새파란 얼굴에

찾아오는 퇴직소식을 따라 찾아오는 것이다.

하기야 圖書館界에도 유능하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근무 초년생들이라 아직 실무에 밝거나 관료 분위기의 重力에 짓눌리지 아니 하였다) 이들은 전문직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와 대부분의 사서가 눈 앞에서 행하고 있는 바가 도무지 서로 맞아들어 가지가 않는 통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지금도 품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분야의 실무를 개선했던 의욕도 왕성하다. 이 글은 주로 이와 같이 현재의 역할이 몸에 맞지 않으며 거기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이 글이 독자로부터 사서직의 전문적 기능이란 무엇이며, 사서직 기능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요청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전문직이란 말을 여기서는 추상적이며 학술적인 각도에서 보지 않으려고 한다. 사서의 기능과 관계적으로 전문직의 기능이라고 인정 받고 있는 것파를 비교함으로써 사서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의 각도에서 보려고 한다. 중심과제는 전문직의 의미를 세 가지 주요 관계——고객과의 관계,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의 관계 및 전문직단체와의 관계——에서 봄으로써 司書職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 司書와 顧客의 關係

고객과의 관계는 고객이 개인이든 회사나 단체이든——후자는 주로 법률적인 사무에서 있는 일이다——간에 전문적 기능의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는 반드시 모든 전문직업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기관이나 사회일반에 대한 전문직업 자신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이다. 전문직업의 활동이 날로 조직화 되고 관료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對顧客關係의 정도와 빈도가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고객에 대한 봉사이다. 이상적인 관계라면 고객은 자기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문직에게 의존한다. 전문직은 자기가 받은 훈련과 경험, 전문지식 등을 동원하여 고객에게 알맞는 상담도 하고 봉사도 해 준다. 전문직의 안내를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판단이나 권유는 법인들이 알기 앞부분 바는 못 된다. 전문가가 어디까지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놓고 볼 적에 사서와 도서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사건을 일반화하는 데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특히 사서의 기능처럼 광범한 차원에 걸쳐 있는 기능을 특장지우려고 한다면 위험하다 뿐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을 작소한다면 다소 일반적인 관찰을 여기서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보통 도서관에서 고객이 요청한 정보나 자료를 사서가 내어 주는 그런 정도의 봉사라면 아무런 복잡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히 전문봉사라고 할 것 까지도 없겠다. 이런 봉사라면 웬만큼 지성이 구비된 대학 졸업자로서 최소 기간의 실무훈련만 쌓으면 거뜬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드시 사서들이 봉사의욕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중에는 봉사의욕이 없는 사서도 있으며 또 어떤 사서들은 몸에 익은 오만기를 부려 고객을 무시쟁이 취급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수집 기능이 봉사기능 보다 상위기능이라고 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서직은 대체로 훌륭한 봉사의 전통을 누려 왔다. 더구나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현재에도 도서관 업무는 다분히 女性的인 성격이 아닐까 한다. 말을 바꾸면 사서는 봉사하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며 하잘것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자식을 아끼는 어머니가 아이의 입에다 먹을 것을 숟갈이 넘치도록 떠넣으면서 꿀적꿀적 삼키는 광경에 그만 정신이 팔려 있듯이 사서는 정보이용자의 식욕의 한계나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든가 또 고객의 취미의 특수성 같은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금씩 그리고 많은 사물에 걸쳐 알고 있지만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도 과히 참신한 이해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서가 비전문가적 역할에 安分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욱 굳어져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은 사서가 관계해야 할 일이란 반드시 극도의 복잡성을 지닌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아니며 醫師를 두고 말한다면 一般參考司書가 一般開業醫師보다 무개가 덜하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약제사와 의사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뿐이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一般開業醫師란 철저히 겁쟁이들이다. 이들의 무능은 이미 깊숙히 뿌리를 내렸고 生理化되어 있다. 학리적 문제 해결이나 확신 있는 대답을 내놓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기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어느만큼 겁쟁이들인가를 안다. 사서의 문제를 도서관 봉사의 두 側面——서로 연관성이 있다——에서 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讀者相談役이 사라지고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 있었던 독자상담 사서란 구체적인 독서조언을 해주고 독자의 취미와 분별

력을 길러 마침내 선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어서 말하자면 독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론과 연결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역량과 열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현대사서들이 자기 일에 자신을 못 갖는 이유는 오늘날 사서의 정신이 한없이 복잡하게 넓혀져 가고 있는 지식의 스펙트럼에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때문일지도 모른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계급 독자의 체면에 사서의 기가 꺾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지의 발달에 따른 약간의 변동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큰 변동에는 대비됨이 없는 딱 짜인 도서관 봉사의 틀을 이제 허물고 들어서려는 봉사형태의 혼란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고객 쪽이다. 알맞는 조건과 藏書內容의 면밀한 조절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형태를 시도하려는 사서란 아주 별난 취미를 갖는 사서뿐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兒童司書일 것이다. 사명감과 높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문헌에 있어 전문가일 뿐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조언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장서구성의 질을 면밀히 통제하여 고객이 스스로 선택에 이르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기는 물론 成人 상대의 사서 보다는 兒童司書가 쉬운 입장에 있다.)

이 문제는, 역시 일반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되지만 자료의 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 들며 때로는 어떤 자료가 어떤 특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조차도 말하지 않으려드는 參考司書의 봉사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사서는 어느 것이 바로 고객이 원하는 자료이며 어느 것이 제일 적합한 자료라는 것을 책에서 자신 있게 말해 주기 보다는 손님 앞에다 이런 저런 각색 자료나 두툼한 書誌類를 내놓을 때 최고로 안심을 느끼는 모양이다. 더욱이 책에서 문제의 해답을 대주지 않는 것이 마치 사서정신의 특징이거나 한 것처럼 한다. 대신 이들이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인쇄물이다. 지난 날에는 이러한 방법에도 타당성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1967년 오늘에 와서는 타당의 근거가 아주 희박하여진 것 같다. 情報源을 순전히 藏書에만 의존하고 있는 봉사방법이 과연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에는 심한 의심이 간다. (법률, 의학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쇄물에서 해답을 구하는 외에 이와 대치할 방법이 실제로 얼마든지 있는 시대에 있어서 사서가 다른 가능성은 다 덮어 두고 출판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단지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時効가 지났을지도 모르는 자료를 얻기 위해 문헌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고 앉았다는 것은 그 일을 알고 있을만한 사람이 비록 500마일 바깥에 있더라도 그에게 전화문의를 한다는 등의 다른 방도에 비해 합리성이 훨씬 떨어진다. 사서의 기질과 훈련 탓이었지만 이와 같이 사서들은 정보검색 방법에 제한을 둬으로써 자기들의 역할의 폭을 좁히고 나아가서 자기 역할의 전문성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대체로 오늘날 사서는 고객을 위해 있기 보다는 중립을 지킨다. 도서를 구하고 저장하고 서가에 올려 놓는 작업에만 끈덕지게 매어달려 이들은 현대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정보라는 생각, 이 정보란 수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인즉 오직 책 한 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들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객에게는 수단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바로 원하는 바는 아니다. 원하는 것은 정보다. 순전히 도서관에만 의존하고 다른 것은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서는 무풍지대에 앉아 마음이 편하다. 그런 반면에 이 같은 사서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고객은 정보를 찾아 다른 접근로를 찾게 된다.

우리는 대규모의 서고 건물을 보는 데 저기만 가면 재빨리 그리고 아무런 혼란도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보다 사서의 특기가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는 데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고객 봉사의 능률은 사서가 그 경쟁적이며 열병에 들뜬 듯이 쌓아 올리는 건물을 그만 두고 收書時의 자료 선택에 노력을 경주할 때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단이 목적처럼 되어 버렸다. 도서관은 장서의 규모로 평가된다. 보다 중요한 평가의 대상인 봉사의 질과 성격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본다면, 목록의 규정과 방침과 절차 등이 궁극의 목적인 대고객 봉사와는 서로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 목록자는 순전히 도서관헌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재래의 형태에서 벗어난 정보 매개물이고 보면 무시당하고 만다. 그 결과 재래적이지 아닌 자료는 도서관자료의 자격을 얻지 못하며 마침내 고객은 도서관 보기를 전통적인 행렬 밖에서 없는 곳으로 알아 버린다. 이에서 대고객 봉사를 한층 보강해 줄 도구의 아주 훌륭한 가능성이 영 잠자고 만다.

봉사의 또 다른 측면 즉 특수한 주제분야만 다루는 도서관과 거기 근무하는 사서들에게는 위와 같은 제약은 없다. 여기서 사서는 비재래적 자료에 대한 전문적 취급을 맡는 것이 원칙이며 한층 수준 높은 정보를 고객이 요구해 와도 이에 응하게 되어 있다. 사서 쪽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확신이 모자라거나 고객이 사

서에게 주는 신뢰도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사서의 교육부족에서 온다. 필요한 교육 없이 학문의 세계에서 일하려고나, 대차대조표나 시장사정을 모르고 금융계 생활을 꿈꾸는 경우와 같이 사서도 준비가 덜된 사서는 정보 추적에 적극적으로 보다는 차라리 카이드 목록과 書名에 충실하는 역할을 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서에게서 문제해결을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고객의 믿음은 한층 굳어져 버린다. 어느 경우나 전문직과 고객 사이에 기대되는 이상론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치료 방법은 이를테면 善惡의 영문학도가 醫學司書로 되는 것을 관용하는 따위 도서관사의 어두운 일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사서에게는 물론 정보의 취급에 요구되는 조직적인 技能과 봉사의 이상 및 기술적인 바탕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객이 사서를 사서로서 받아 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전문성이 그에게 있다고 보아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데, 이것은 고객이 사서가 갖는 주제분야의 능력을 존경할 수 있을 때 뿐일 것이다. 이 말은 주제분야 사서란 좁은 특수분야의 주제에 고도의 훈련과 精進을 쌓은 학도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서의 교육과 실무 사이에 지금까지 보다는 더욱 훌륭한 일치가 있어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생물학, 화학의 기초적 연찬이 없는 사서는 의학도서관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며 경제학, 재정학의 修學이 없는 사서는 실업분야 사서 되기에는 불편이 있다는 결론이다. 직원채용 방법에도 당연히 변화가 와야 한다. 전통적으로 인문과학도에 대한 지나친 치중을 시정하고 자연 및 사회과학 쪽으로 중점을 돌려야 한다. 교육국과 국립의학도서관의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연방정부의 대학원교육 支援規模가 점점되고 있는 배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망은 도서관 학도를 원조하려는 자각이 전혀 없었던 때나, 좀 초기 단계에서 도서관 업무가 정보봉사 보다는 주로 보관기능에 가까웠던 때 보다는 훨씬 확실하다.

전문직 사서에는 두 가지 이상적인 유형이 있다. 하나는 주제별 전문 특수 사서이다. 법률 학위를 가진 법률사서, 미술교육을 받은 미술사서, 음악교육을 받은 음악사서의 유형이다. 대학교에서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學科司書 및 단과대학사서가 이 범주에 속한다. 최근에 와서 주제별 서지전문가가 대학에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주제별 集書組織의 專門家와 司書의 두 가지 역할을 겸한다. 가끔 특수 학문이나 도서관학 출신으로 주제분야의 능력 때문에 고객의 존경을 받는 수가 있다. 이것은 사서교

육의 다음 단계가 근본적인 수정을 요한다는 말도 된다. 주제분야의 능력을 強化하기 위하여 계획된 課程을 사서교육 가운데 수립해야 한다. 사서가 자기가 봉사하는 주제 분야와 사서직책 두 가지에 다 자신이 있을 때 그는 훨씬 유능한 사서가 되는 것이며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직 대우를 더욱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걸음 더 나아가 사서는 정보제공의 역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옮겨 갈 수 있다. 주제분야에 자신이 있으면 사서는 간행된 서지류에 덜 의존해도 좋으며 자신이 즉석에서 서지 및 참고봉사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서지의 체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분야의 주제에 좀더 창의적인 정보제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따라서 사서가 이러한 면에서 고객의 존경을 모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겠다.

문제해결에 임해서 사서가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봉사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은 사서의 전문직교육이 져야 한다. 도서관학교는 드문 예외가 있지만 전문직 기능의 핵심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길러 주지 못했다. 개개 사서가 고객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지자면 사서는 타고난 直觀力과 서지적 전문지식과 주제분야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도서관학교가 여지껏 수 세대에 걸쳐 배출해 놓은 것은 온전히 일반적인 봉사형태에 집착한 사서들이다. 지금까지 도서관학교 학생들이 봉창하는 철학의 빈곤을 막연한 봉사개념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관계로 파악한 적은 없었다. 참고 업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들은 書誌에 대한 口述講義와 간단하고 단편적인 사실 찾기 연습이나 또는 참고업무 관리상의 막연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장기로 아는 전형적인 일반론자들이다)은 일반적이며 기계적이며 서적 중심의 교육은 다만 초보단계의 실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여 자기들의 교육을 정당화시키려들쩍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은 대부분의 사서로 하여금 일생 동안 좀 더 수준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초보단계에서 머물 수 밖에 없도록 조건을 지어 버리는 것 같다. 좁은 범위의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융통성 없는 레퍼터리를 익히는 동안에 사서는 자기 고객을 위해 좀 더 융통성 있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염두조차 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버린다.

어느 직업이 자신의 전문기능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때가 있다 하겠다. 전문기능의 실천력은 여러 면에서 외부요소의 제

한과 영향을 받고 있다. 비교적 소극적인 직업인 사서는 특히 그런 점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 고객과 지역사회의 요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고객과 사회의 이 요망은 대개의 경우 사서 자신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직은 대고객 관계에 있어서 고객이 그를 전문가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 주기 전에는 전문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여러가지 요소가 사서로 하여금 전문직으로 용납받지 못하게 방해해 왔다. 그 중 한 가지 요소는 사서를 옹고집적으로 부정적인 자세에서만 보고 정보 검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줄 친구로 보기를 꺼리는 고객의 체질이다. 비학술적인 문제를 두고는 보통 사람은 사서가 자기를 도와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부가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며 책벌레 같이 보이고 그래서 공연히 사람을 불안스럽게 해 주는 이런 따위 사람에게 자기들의 무식이 들어날까봐 두려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한다. 학자들은 보조 받지 않고 자신이 이룩한 사업의 공을 타인에게 양도하기가 싫어서 (대학에서 자기 지도 아래 움직이며 그 결과 맡은 일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만큼 주제배경을 갖고 있는 대학원 조수에게는 예외다) 사서에게는 오직 사소한 도움만 청한다.

이같은 장벽들은 전문기능 발휘를 위해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서가 도서관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의 주저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기술만 체득한다면 많은 수의 고객을 자기에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사서 양성 교육이 순전히 書籍解題의인 方法을 지양하여 自立的인 能力의 培養을 시도하게 된다면 고객의 체질도 바뀌어 사서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것이며 전문적인 조력도 요청해 올 것이다. 고객의 자유를 완전히 앗아버리자는 의미는 아니다. 전문적이 고용되고 있는 다른 예에서도 그렇지만 전문직의 봉사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고객의 자유인 것이다.

사서가 소속된 조직체 자체가 대고객 관계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이 조직체가 주는 제약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겠다. 외부 환경이 도서관에 영향을 주듯이 사서의 전문역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고객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다른 봉사기관과 같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같은 외부 세력은 성격적으로 자기들에게 봉사하는 어떤 기관이 영구히 전통적인 기능만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역사가 긴 도시에 있어서 그 인구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왔을때 공공도서관은 중산계급에 대한 문화전승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는 중산계급고객의 의욕과 문학적 취미와 가치에 영합하는 대고객 봉사개념이 생겨났다. 지역사회는 대표적으로 이 같은 부조화에는 무감각이다. 대학에서 대학원 및 연구과정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해 보면(이것이 대부분의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현실이다) 학부의 오랜 역사 때문에 대학원과 교수단에 대한 봉사 보다도 학부에 대한 봉사가 계속 우선권을 쥐게 됨을 본다. 이같은 상황은 연구직과 교수단에서 대학과 도서관 행정당국에 영향을 주는 데 성공해야 비로소 시정된다. 도서관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경향을 띠지 않지 아니라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도서관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는 최소한의 봉사만 도서관에서 기대할 뿐이다. 공공도서관 고객은 테크리에이션을 찾아 도서관을 찾는다. 대학에서는 강의실 부속인 指定圖書室이 도서관의 성격을 모르는 행정가들과 指定圖書室과 도서관의 성격을 다 모르는 사서들에 의해서 본래의 도서관과 혼동시 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대고객 봉사가 가끔 희생이 된다. 개개 학생의 지적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이상론과 학교의 커리큘럼 통제 사이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당 수의 학교에서는 사서가 타교사의 대행역할을 하거나 도서관이 독서실이나 수업 준비실 정도로 사용됨으로써 실제 학교도서관의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학교, 교사, 학생 중 누가 진짜 고객이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와 모호성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사태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위에 든 예의 어느 경우이나 도서관의 수용 태세는 외부 환경의 수요에 비례한다. 이 외부환경의 수요란 것은 전문직과 고객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지역사회의 기대란 늘 最小值에 머물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로 하여금 도서관에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결국 도서관이다. 이런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는 없다. 要點은 사서의 전문직 기능은 공중의 도서관과 사서의 기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기능이 개척되려면 공중의 對圖書館, 對司書 이미지에 전면적인 수정이 와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고객관계는 주로 개인만 다루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 놓고 다룰 필요도 있으며 기타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서 다룰 필요도 있겠다. 두어가지 예를 들어 보자. 우선 공중보건의 및 사회복지 문제를 보

자. 이 곳의 고객은 자기들 스스로 공중보전과 사회복지 사업의 기능을 단순히 눈 앞의 고객을 돕는 데만 머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공중보전 사업은 병의 예방책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사업은 원조요구 회수를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반해 도서관 봉사는 지금 당장은 도서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영역——공공도서관은 독서능력을 옹호 못 갖췄거나 기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을 개발하는 일, 학술도서관은 소극적인 수집기능을 지양하고 새로운 봉사 형태를 고안하는 일, 학교도서관은 교사의 자기교육을 위한 장서와 시설을 확충하는 일 등——에 노력을 기울일 때 겨우 고객의 주목을 끄는 정도다. 위와 같이 수정된 봉사방법은 이 방면의 진보적인 생각과 상충되는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더욱 널리 알려져 있는 일치된 생각은 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용하지 않는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업무의 수준으로 보아 좀 더 혁신적이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대고객 봉사——전문적인——의 실현을 보기는 요원한 것 같고,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다면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한할 것이다.

#### 司書와 所屬機關의 關係

사서의 대고객 관계는 사서가 소속된 조직체의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형식적 조직체 속에서 활동하는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서는 전문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와 피고용자로서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전문직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 대고객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표준과 윤리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제량 등을 생명으로 삼는다. 전문직은 자기의 행위에 간섭을 하는 조직체의 권위를 배격한다. 이같은 독립성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사서직의 경우는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다.

사서는 직접 고객을 상대할 적에는 거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參考司書는 고객의 질문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까 또는 아예 이 질문을 취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대표적으로 자유스러운 직분에 있다. 사실 그는 자기의 흥미를 끄는 질문이나 自信을 느끼는 질문에는 훨씬 시간을 오래 보낸다. 또 질문의 정도를 고객의 명망, 권위, 인격, 외모,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지적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 도서관 봉사의 기초는 민주적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개인이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지는 인간성

의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조직이 이처럼 참고사서로 하여금 자기의 흥미와 능력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고객봉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행정적인 압력이 따른다. 행정적인 압력은 참고사서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에게 기회를 주도록 질문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대규모의 조직체에서는 일부러 사서에게 익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새 직원들이 개인적인 추종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경고도 한다.

전문직의 고객 상대는 조직체로부터 직접 간섭 받는 것이 아니하지만 최대 다수의 고객에게 두루 혜택을 배풀 것, 어느 특정 고객에게 치우친 봉사를 배풀지 말 것 등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직체의 성격과는 불가피하게 대립되어 있다. 관료적인 규범에 충실하다 보면 조직체의 이익만 살리는 것이 되어 고객에 대한 전문적다운 봉사는 희생되고 만다. 결국 관료적인 규범은 바로 조직체의 목적 자체와 상충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단이 목적으로 되어 버린다. 전문적이며 지성적인 봉사 기회는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직체의 명분 앞에 희생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조직체 내에 질서와 통제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활동 범위와 규모가 클수록 일정한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봉사 능력을 가장 다분히 갖고 있는 대규모 도서관일수록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줄 기회는 여지없이 박탈되고 대고객 봉사는 최소한도로 줄어지며 전문직의 기능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월턴(John Walton)이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도서관의 기능은 질서와 기록유지상의 통일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미묘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창의력 있는 행정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전문직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앗아버리는 짐스러운 규정을 강조하는 데서 이 같은 균형이 발견될 리는 만무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조직체의 결심의 책임은 반드시 전문적이여야 하며 경제적인 고려와 압력이 봉사의 질을 낮추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드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은 목표 결정은 管理職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그런 유의의 조직체로 빠져 가고 있다. 도서관은 전문직이 요청하는 當爲와는 상충되는 관료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 전문직의 정신과 정열은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위를 보장해주는 환경에서 가장 잘 피어날 수 있는데 비해 관료적인

제도는 성격상 부족을 요구한다. 관료적인 조직은 급속한 변화를 막음으로써 그 體制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 변화를 초래할 법한 사조가 자체 내에 일어나면 이를 막아 버린다. 최소의 봉사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향이 그 한 예이다. 조직체가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의 요구가 보편적으로 있을 때 철차상의 사소한 개선은 허용될지 모르지만 (열람철차의 오토메이션이 한 가지 예이다) 도서관의 목표를 바꾸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에는 여전히 저항이 심하다.

賞與制度를 통해 조직체에 대한 충성심을 자극함으로써 전문직의 양보를 얻는다. 전문직은 자기 직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성의 대상으로 보지만 조직체는 조직체를 위한 충성만을 인정한다. 전문직이 조직체 내에서 상여와 안전과 지위를 도모하려 들면 그는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야 한다. 그래서 대고객 봉사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지키려는 전문직은 불가불 조직체의 요구와 충돌을 면치 못한다.

관료적인 제도가 이처럼 전문기능을 해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뛰어넘지 못할 장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서 쪽에서 도전이 없다. 사서는 이상적인 전문역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바 있는 작업형태를 언제까지나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가는 물론이요 사서 쪽에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서의 주임무는 대조직 봉사가 아니라 대고객 봉사라고 믿는 사서는 자기 동료 사서 사이에서도 충성심이 모자란다니 비협조적이라느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느니로 지목되고 만다. 학술도서관에서 배출되는 서지전문가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 아니겠는가? 그들은 도서관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느냐 또는 어떤 주제의 전문가가 되느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은 나머지 관료제의 속박을 벗어나 학문적인 자유 분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는 필요한 업무상의 규칙을 배겨내지 못하는 자, 고객과 더불어 게으른 대화로 시간을 버리는 프리마 돈나, 배신자, 타락한 자라고 동료 사서들에게서 비난을 받는다.

다른 유사한 분야의 행정가들(도서관 행정가들과 같이 이들이 전문직 출신일 때는 특히 그렇다)은 전문직의 가치와 희망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민감하다. 그래서 전문직과 기타 특징자의 작업 조건에 맞추기 위해 관료적인 제한을 뚫어줄려고 애쓴다. 도서관 행정가들은 이와 반대다. 오히려 이들은 행정적인 제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전문직이 개발될 수 있는 풍토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행정가가 도서관 속에는 허다하다. 전문성의 피리를 소리 높여 부는 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는 전문직을 보되

조직의 편에 서서 본다. 대학원 졸업생들을 보되 이들이 쓰일 장소와 이들의 가능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射擊線에 올려 놓아질 보충병으로만 본다. 이렇게 되니 사서는 필요에 따라 아무 곳 아무 때나 교환해 넣을 수 있는 부속품인양 취급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전문성을 살려 일에 임하고 자기성장도 도모할 기회란 어느 사이 박탈당하고 만다.

또한 도서관 행정가는 자기 조직체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해질 못하다. 학원 속에서는 고객의 정보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지 못하며 도서관 기능을 극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고칠 수 없겠다는 폭풍주의보가 오래 전부터 내려져 있었다. 사소한 징후가 나타나면 근본적인 혼란이 닥치기 전에 골 손을 써야 하는 것이지만 도서관 행정가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 설사 자기의 직업적 생명을 내거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서서 자기 주장을 펴야 할 때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도서관 행정가이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중심 문제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에 관계된 문제다. 지금은 사회적 요청으로 보나 기술의 발달 기타 극적인 요소에 비추어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나 적합하였을 중산계급과 도서위주의 봉사태도에 시정이 와야 할 때인 것이다.

사람과 조직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행정을 얻고 만다. 그렇다면 왜 오늘과 같은 人的 기근의 시대에 처해서 사서는 자기들에게 완전한 기능발휘의 기회를 앗아가는 행정형태를 묵과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행정가가 전문직의 성격을 모르고 있듯이——전문직의 특성을 무시할 정도로 근시안이거나——사서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무식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운운은 솔로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행정기능이야 말로 유일한 전문기능일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도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권위적인 기구 앞에 무작정 쉽게 굴복하고 만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이제 더 다른 책임과 임무를 떠맡지 않아도 좋고 전문직이 요청하는 점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직체의 현상에 도전을 거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은 관료적인 풍토에 전폭적인 신임을 던지게 되고, 사람이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능력이 없으므로 引導 받을 필요가 있다는 官僚根性을 몸에 익힌다. 이 말은 단순히 사서들이 관료주의의 빛에 항거하지 않는 다거나 도서관 지도자들이 사서로 하여금 남아빠진 형식에 질식 당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에의 영감을 갖도록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잔인하게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실무 사서들을 뒤엎고 있는 도서관 행정가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도무지 진정한 전문직 봉사를 특징지우는 행동의 독립과 자유를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오늘날 도서관이 難關에 빠진 原因의 一部는 필연코 職員의 부적절한 활용과 관계가 있다. 근년에 와서 소위 전문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상당 수의 개인들이 정규의 아카데미한 사서 교육의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이들에게 주어야 할 지위와 이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분석 검토한 적이 없다. 그 결과 破格的으로 많은 수의 사서가 이제껏 曠은 교육과 전문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직책에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교육이 부족한 사서들이 몇몇 안 되는 지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시기심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너무도 많은 사서가 기술과 훈련이 별반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완전한 활용을 못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이 전문작업에 진종일 계속 집중해 있어야 한다면 긴장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대학교수가 주당 40시간이나 강의를 하지는 않으며 사회사업가가 종일 인터뷰를 하지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서직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균형을 주자는 입장인 것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비전문적 작업에 충당하고 있는 까닭이다.

행정가들이 도서관에 공석이 지나치게 많아 걱정이 라고 비명을 질러대지만 공석중인 이들 일자리의 작업 환경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그 자리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표현기회가 너무도 제한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을 부르는 이들 일자리는 마땅히 하급 고용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雜務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피로를 주고 노력을 아끼지만 전문성과 중요성은 조금도 내포되어 있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에 전문적이 분수 없이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는 예는 도서관 마다 볼 수 있다. 행정가 보다는 전문직에게 주어져야 하는 위엄과 존경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발랄한 직업정신, 높은 이상과 정열, 창의와 실험 같은 것은 의심 받고 오해받기가 십상이어서 이 같은 정열은 결국 관료정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며 마침내 이상주의자는 아홉시 출근 다섯시 퇴근생이 되거나 다른 탈출구를 찾거나 한다.

사무적인 일은 비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필요성은 사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적인 작업에 보내는 시간이 역시 비전문적인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못한다. 이 점에 있어서 사서는 행정가가 되어야 하겠다는 희망과 전문직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정신이 착란된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분야의 직업인들과 상통되는 바가 많다. 아마도 행정적인 업적의 가치는 분명한 인정을 받으며 관료조직 속에서 높이 평가되는 반면에 사서직의 전문적인 기능의 가치는 흔적이 분명하지도 않고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는 더욱 기꺼이 그리고 유감 없이 행정적인 책임을 떠맡는 것일 것이다. 또 행정책임을 맡으면 대체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최고의 전문기능은 행정기능이며 직접 또는 간접의 대고객 봉사는 행정적으로 나아가는 停留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

職務分掌이 개선되고 도서관 전문직 기능에 위엄이 부여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직원의 再分類는 사서의 기능을 약간 승격시켜 주기는 하겠지만 역시 더 큰 제약을 가져 올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전문직 정신을 높이고 전문직에 대한 조직체의 책임의식을 낳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민주적인 행정이나 인화적인 방법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서관 사서적 자체의 장래는 전문성의 확립 여하에 매인 문제라는 점을 말해 두고자 한다.

전문성이 약체로 남아 있거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한 도서관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급격히 양상과 양을 달리해 가고 있는 요구에의 적응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 세력이 직접 도서관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情報奉仕機關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실지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일어났었다. 고위직 도서관 행정가들이 직책에서 밀려 났으며 외부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特殊主題의 專門家들이 도서관 직원단에 추가되었다. 일부 행정가의 주장처럼 대다수의 사서가 완전한 책임을 떠맡기에는 준비 부족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서들 자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더 많이는 행정지도력의 파산의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전문기능을 살리는 데 부적당한 조건을 행정가가 육성 내지 보호한다면 위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일 것이다.

#### 司書와 專門職團體의 關係

개개의 도서관에 전문성의 흔적이 왜이처럼 미미하며 왜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빨리 이루지 못하였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고 나아가 전문기능의 성격과 자기의 전문성과 타자의 그것과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서가 한 枝體로 되어 있는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 協會나 學會와 같은 전

문직단체—약간 덜 형식적이며 개인적인 성격의 단체와 협력단체를 포함—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사서의 다양한 기능 양상과 전문적으로 성장하여가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회원될 자가 이 분야의 업무와 지식을 소개 받고 자기가 맡을 업무의 가치를 교육 받는 과정에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일선 도서관과 도서관학교 간의 유대가 긴밀하다는 것, 그리고 이 유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는 노스탈지어와 더불어 더욱 굳어져 가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圖書館學校 出身자들이 학교과정에서 전문성 교육을 충분히 못 받았다는 사실을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傳來의 秘法이라든가 就任節次라든가 봉사 개념에 대한 마음 가짐이라든가 도서관계의 영웅들에 대한 찬미라든가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업적에 대한 신념의 강화 따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모두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 전문적 지식의 본질, 이론, 철학, 윤리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 예외를 제하면 교과육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면서 교육 기관에 들어 왔거나 실무경험이 있고 난 뒤에 짧은 기간의 여가를 이용하여 교육기관에 들어온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도서관 교육의 프로그램이 짜여 졌다는 데서 일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의 대부분은 도서관 교육을 싫지만 억지로라도 받아 들 필요성만은 있는 과정, 그 내용은 재주껏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이미 실무에서 얻은 기술을 補強하는 데 될수록 많이 연결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서관 학교로서도 학생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意識과 自身이 보는 바로도 학교의 기능이 학생들이 보는 바와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거기에는 확실한 철학적인 배경마저 없으니 학생 쪽의 요구를 들어 주는 방향으로 더욱 더 기울어져 버린 것이다.

더욱이, 전문적 학교가 이렇듯 약체화하고 또 실무면의 先導役に 忠實하게 됨으로써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공, 학교 및 특수 도서관이 그네들의 실무수요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같이 분산된 요구에만 추종하는 교육을 한 결과 사서직의 성격이 공통된 사상, 철학 또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계가끔 분산되어 버렸다. 관종별 특수 요구에 맞춘 기술 교육을 한 결과로는 도서관의 행정과정이나 자료의 구성, 문제해결의 방법이 관종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셈이 되고 말았다. 도서관

간에 널리 적용되는 융통성을 도서관학교는 걸러주지 못하고 말았다. 학교도서관 사서는 자기들은 공공도서관 사서와는 유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도서관 사서는 특수도서관 사서와 자기들을 분리시켜서 본다. 이러다가는 마지막에 가서는 도서관 간의 장벽이 굳어져 협동적이며 창의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지역 조직 및 도서관 간의 협동조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발장은 도서관 교육이 명목상으로는 대학원급에까지 승격해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정직하게 따져 이 교육이 지적인 공헌을 어느만큼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전문성 운운이란 단지 자기들의 역할을 전문적이라고 합리화하려는 도서관 교육 당사자들의 한갓 말장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도서관 교육이 진정한 전문적 교육이 아니라면 이 분야의 교육 및 행정 지도자들의 자화상이 무엇이 될까? 도서관 교육이 이념, 문제성, 이론 및 개념에 중점적인 관심을 두고 일상적인 과정, 기술, 절차 및 방법에는 부차적인 관심만 두며 “어떻게” 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에 더욱 무게를 두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과 긴긴 설교와 기계적인 절차는 결국 쉽게 학문성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직도 수 없이 많은 대학원 학생들이 유명한 현대 사서의 이름을 외우며, 분류표의 유강목을 기억하며 어떤 책에는 색인이 있느니 없느니 목차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따지며 마아겨렛 미이드는 인류학자이라느니 따위 사소한 지식에 사로잡혀 수박 겉핥기식 교육에 임하고 있다. 이 시간에 이들은 마땅히 정보제공업무의 현대조류와 변화의 이유라든가 분류체계의 논리나 문제해결의 자원으로서의 서지 및 정보제공기관의 구조 또는 개인, 단체, 사회의 정보요구 결정요인 같은 것을 교육 받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덮고 있는 그 정도로 교육은 지역적인 것이 되고 지적인 내용확충의 기회는 減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질이 낮은 자격증 문제다. 도서관교육의 자격인정 과정 (특권으로 보호 받고 있다)이 피교육자의 자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교육내용을 갖춘 학교이면 계속 인가를 얻고 있어 이에 따라 질 낮은 학생이 계속 자격인정을 받아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진정한 기여를 하자면 매과정에 좀 더 어려운 시험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 교육이 시대 요구에 맞추어 재래적인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택하도록 권장할 의도에서라면 타기관의 모범도 따를만하다(SLA와 ADI). 현재 실시 중인 대학원 과정의

자격인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준을 조장할 위험이 다분하다. 삼류문사가 질 낮은 TV 프로를 보고나면 자기도 그런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아뭏든 현재의 대학원 수준만은 좀 더 높여두고 볼 일인 것 같다. 사서직의 장래를 위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처해서 이류 삼류 학생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해로운 일이다.

별로 고통없이 얻어지는 협회의 認可書는 한층 근본적인 병폐의 원인이 될지 모른다. 사서교육기관은 전문성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이를 교수할 이론가와 학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서교육을 맡는 교수단은 그 멤버의 압도적 다수가 인문과학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서관학의 학문적 요소를 보지 못했거나 고의로 보지 않으려 했다. 이들은 記述의이며 역사적인 내용에 능하다. 박사과정은 행정적인 승진을 위한 도약대로서 또는 종착적인 연구목적을 위한 학술활동으로서 존속해오긴 했지만 역시 방법론적인 정확성보다 지엽적이며 서지적인 면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

사무적인 일의 과중한 부담을 불평하면서도 그런 기능을 언젠까지나 바쁘게 수행하고 있는 실무 사서와 마찬가지로 학자들도 순수한 학술연구를 위한 시간이 모자람을 한탄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서 털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육과 배경에 낯선 주제를 계속 다루는 위선을 범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 이유는 이들이 고도의 상상력도 개념의 교육과 학문적이며 지적인 기초 배경도 갖지 못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교수한 바는 현대의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적인 바탕이 없고 사회과학 기타 어려운 학문의 분석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역사 연구나 응용적인 概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학술연구다운 연구가 설사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교육에 침투되어 있지 않으며 박사과정 연구까지도 사회적인 관심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는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와의 연결이 1930년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1940년 대는 無爲하게 흘러 가버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과학이 소수의 도서관학자들만이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은 있다. 기술문제와 그 응용문제가 도서관 분야의 연구자들을 압도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 행정, 조직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를 포함한 기타 문제들은 일소되어 버리고 다시 한번 철학

적 목적 보다 실용적 방법론이 이 분야의 탐구적인 인사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학교들은 전문성의 요청에 부합하려고 기본적인 지성교육과 핵심적인 지식교육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는 수도 있다. 전문직 단체는 전문성이 개인의 인정과 보상을 보장해 주는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학문성이 짙은 직업에서는 인정을 얻고 위엄을 세울 수 있는 근원이 자신이 소속한 기관이기 보다는 동업자 단체이기 쉽다. 직업의 성공과 성취는 대체로 학문하는 동료들 간에 현저한 업적을 보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 문필활동, 기타 학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비교적 적은 수의 개인을 제외하고는 출판물의 통로를 거쳐 광범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사서들은 소속된 기관의 요구에 열심히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직업의 세계에 널리 명성이 알려지지 못할 바에는 자기가 소속된 기관 내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기관 내의 승진이나 타기관으로의 승진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있어서 승진에 대한 진정한 장애는 이동의 제한이다. 도서관계 내의 승진이 직업 전체에 대한 공헌에 따라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같은 인정이 보편화되어 있는 학술도서관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만약 이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행된다면 전문화의 과정은 빨라질 것이다. 이 말은 사서직의 목표달성이 반드시 되지 않아도 논문의 홍수에 의해서 축적된 리턴 뜻이 아니라 이같은 외부 발표를 높이 평가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대한 자극이 되리라는 얘기다.

사서도 대외로 자기를 선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주 그렇게 한다. 전문적인 기능에 관계하는 것이 가끔 승진의 전주곡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극히 소수의 사서가 직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승진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기능에 관계하고 참여하는 것이 승진의 방편이 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특수도서관 사서가 자기의 능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타기관의 전문직 동업자에게 의존하는 예에서 이런 경향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동료사서를 정보 접근으로 삼을 때 그는 제한된 장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기관에 전문적인 기여도를 높인다.

우리는 참다운 전문직 노릇을 하는 사서의 뚜렷한 증거가 그의 對人, 對社會 관계의 성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 전문직은 끊임 없이 접촉 범위를 넓혀간다. 현재 갖고 있는 교류관계를 강화한다. 自我鍛鍊

과 도서관과 지역 및 국가의 도서관 활동과 자기가 관 계하는 다른 특수 직업 분야의 활동에의 관계를 통한 자기 성장을 꾀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능을 추구한다. 그에게는 전문직업계의 동향과 발전을 학술잡지나 연구 논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빼놓지 못할 과제이다. 사회조류에 뒤진다는 것은 그에게 불안의 요소가 된다. 이상과 같은 태도는 교제 범위를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의 편견과 약점에 거슬리지 않는 대상에만 국한시키는 사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소위 전문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가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회원들이 자기들의 직업실패담만 지껄리고 있는 회합, 회합의 목적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지위를 영속화시킬 궁리만 하는 집단, 지엽적인 문제만 붙들고 왈가왈부 하노라 시간만 버리는 단체, 이들의 활동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참으로 열 심하며 상상력 깊은 수 많은 사서가 이같은 활동에 참가했다가는 좌절감을 느끼고 돌아 선다. 이들의 활동의 특색은 儀式的인 것, 日常的인 것, 그리고 社會的인 것에 치우치고 있음이다. 이래서 생각 깊고 능력 있는 사서의 참가는 아예 배척되는 것이다.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전문성의 실현이, 기능이 독립 되어 있고 고급 고객과의 접촉이 빈번한 특수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전문적인 유대는 전문직 동업자 간의 일상 관계를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사서와의 친밀한 동료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조장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문직의 가치는 고객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는지 모른다. 현상유지를 옹호한다든가 고객 輕視의 움직임에 합세하는 따위 부정적인 양상을 띄우는 예를 동업자 끼리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본다. 사서들이 힘을 모아 일을 하면 자기들의 표준과 가치를 조직체에서 실현하기는 쉽지만 이들의 노력이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합세를 미끼로 최소의 봉사를 정당화하고 나설 위험이 있는 것이다.

뉴욕 시의 각 도서관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태를 前兆로 본다면, 더욱 전투적인 단체결속이 형성되는 날에는 전문기능을 높이는 목적단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인 흥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화할 가능성이 짙다. 단체결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고용인의 권익을 옹호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단체를 결속시키는 것이 결코 전문직의 목표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겠지만 그 여파로 창의와 봉사정신의 함양, 개선

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각 도서관의 권위적인 구조를 더욱 굳혀버리는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단체결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들고 나온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도서관직은 사서에게 검열의 압력을 배제해주고 지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직업윤리를 갖고 있다. 피스키(Marjorie Fiske) 연구서는 많은 사서가 실천하고 있다는 자체 검열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사서는 반드시 외부 검열의 압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이 理想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직업 윤리는 윤리대로 살아 있을 수 있다. 많은 사서들은 검열제도에 찬의를 표명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어서 웃음거리가 될만큼 무시 당하는 일이 없다면 사회는 결국 이것과 이것을 지지하는 단체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아몽든 검열제도는 직업의 전문성과는 반드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서들은 자기들의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최소한의 근무성적을 유지하자고 하는 주장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으로는 전문직이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리를 떠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좋고 나쁜 이유를 끌어대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서의 많은 숫자가 기혼 여성들이라 이동이 불가능하다. 사서들은 가끔 제자리에 오래 남아서 일정한 수준의 봉사를 하는 한편 불구인 남편을 낳게 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있는 낙천적인 부인과도 같은 자세로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다는 합리론을 편다. 조건이 개선되리라 희망이야 四時로 있다. 이 일에 있어서 사서의 하는 일은 입학지원자는 다 입학이 되고 입학하면 누구나 졸업을 하는 그런 대학의 교수가 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주어진 시간과 상황 아래에서 어떤 조건이 치료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이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어떤가를 판단할 아무런 정척이 없는 것이다. 순진한 희망보다는 전문적인 기능과 조건개선을 위한 열의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며 인내와 희망 보다는 적극적인 전문성이 보편적인 기준이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작업조건과 자료의 개선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사서들 자신이 아니라 교수나 교사 단체와 같은 외곽 사회 단체로 되어 있는 도서관의 현황을 안다면 전문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당황해 하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 실무자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도서관 봉사의 이상과 목표에 이들이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극성을 띄었느냐에 달렸다. 사서직은 아직도 사서로 하여금 문제의 경중을 따져 업무할 수

행하게 할만큼 권위 있는 영향력을 주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봉사형태를 그대로 묵과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가 귀해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만을 생각하는 국가의 교육 지도자들의 영향이 크다. 오늘 처럼 자료가 범람하는 시대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서들은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 있는 봉사조건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서관사의 상당한 부분까지는 전문직협회는 선봉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개의 국가적 단체가 사서직의 모든 요소에 대해 권위를 뽐내던 시대는 지났다. 각가지 이름을 내어준 정보활동이 극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해 가고 있다. 전통적인 모습의 도서관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력한 기관과 기술에 패하고 말 것이다. 주축을 이루는 한 국가 단위의 협회가 지금까지 여러 면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주요 관심은 이제 전문성에 있다기 보다는 정치성에 있다. 주로 공공도서관과만 제휴하고 있으며 도서관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태에는 의견을 하고 있다. 대학원교육 認可基準 방침에 있어 지나치게 결손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도서관의 인가에는 아주 관여하지를 않음으로써 그리고 정력의 전부를 자체의 규모와 정치적 경제적 세력 확장에 집중시킨 나머지 국가 단위의 협회는 전문성 발전에는 거의 아무런 공헌도 못하고 불구적인 현상의 계속을 돕고 있을 뿐이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미국도서관협회는 확립된 이권을 갖는 관료단체이다. 그의 주요 직책이 도서관 행정직에 있는 인물들에 쥐여져 있는 한, 기구의 권력이

소수집단에 의해 행사되고 있는 한, 그것은 전문성을 띤 협회가 아니라 행정단체이다. 규모가 크고 조직이 전국에 미치는 다른 소수 독재적인 기구와 마찬가지로 ALA도 창의력 있는 신진을 그의 위원회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뒤진 지역적인 문제 개선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서직의 전위적인 역할의 개선에는 등한하다. 자기 능력에 속하지도 않는 국가적, 국제적인 연구과제나 사회적인 책임을 맡고 나섬으로써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급급하다. 크고 작은 대회와 모임은 다분히 일반 대중에게 낯아빠진 재래식 방법으로도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과제를 던지는 변화하는 세계의 전문직업을 위해서는 별로 유익함이 못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여와서 현재는 전문직 지위 확보의 경쟁에서 승패가 엇갈린 경제선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서직이 전문성을 고양하기에 무서운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서직이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이미 전통적이며 재래적인 도서관은 새로운 기관과 새로운 전문가들이 양상을 달리하는 정보요구와 전문봉사의 요구에 더욱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고 나섬과 때를 같이 하여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사서직의 발전은 소수 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혁의 손은 작은 데만 의치고 있으며 이런 자세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건만 館界는 과거에만 깊이 이 끌려 현실을 관망만 하고 있다. 발전의 요체는 본고에서 제시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에 근거한 새로운 전문성을 탄생시킬 일 것이다.

(譯者: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助教)

##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一線에서 苦闘하시는 會員 諸位의 健勝을 비읍니다.

會員 諸位의 꾸준한 協助와 鞭撻로 創立한 以來 落後된 圖書館發展에 盡力하고 있음을 同慶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本會의 財源은 國庫補助와 會費이온바 國庫補助는 當局에서 指定 承認하여준 事業費補助이며 自體事業費와 經常費는 會費로 充當됩니다. 지난 第14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總 18種의 事業을 成功裡에 完遂하고, 우리들의 權益을 높히려는 共同努力에 會員諸位의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思料되오나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